

해남서 봄철 스포츠대회 돌입...“지역경제 훈풍”

올해 54개 스포츠대회 개최 예정 상가·숙박도 ‘복직’ ‘스포츠·관광’ 맞춤형 마케팅 성과...13만명 선수단 유치

해남군이 봄철 스포츠대회 개최에 본격 돌입하며,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우슬체육관 등에서 전국 67개팀, 1천3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제61회 춘계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1천여명의 학부모들까지 해남을 찾으면서 해남읍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연일 인파로 북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고 농구대회의 경우 의무트레이너가 없는 중·고등학교 팀을

위해 대회 기간 전문 재활팀을 투입, 참가 선수들에게 스포츠테이핑, 마사지 등을 지원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 기간 세심한 지원으로 지난 2019년 대회 당시 48개의 참가팀이 67개의 팀까지 증가했고, 당초 9일의 대회 기간이 10일로 연장되는 등 해남군의 맞춤형 마케팅이 성과를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남군은 올해 국제 대회인 코리아오픈·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근대 5종 대회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16개를 포함해 50여개에 이르는 스포츠 대회를



해남군은 최근 우슬체육관 등에서 전국 67개팀이 참가하는 제61회 춘계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15회 전남도협회장배·도대표 선수

선발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최근 선수와

임원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오는 27일부터는 5일간 제26회 한국

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

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023-2024 동계전지훈련을 통해 10개 종목 200여팀에 3만명이 해남을 다녀갔으며, 각종 스포츠대회 등을 더해 약 13만명의 선수단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계 시즌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세계 유명지도자를 초빙해 전지훈련팀을 지원했으며 감동이 있는 스포투어(스포츠+관광) 프로그램으로 전지훈련팀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지원, 선수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을 방문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감동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며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가 고스란히 지역 경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매란국죽 대표 지역 모여 ‘사군자 테마축제’ 만든다

함평·광양·신안·담양 등 협약체결

함평군은 “최근 제2회 광양매화축제 주 무대에서 광양시, 신안군, 담양군과 사군자 테마축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각 4개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광양매화축제, 신안새우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담양대나무축제를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사군자 테마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사진)



매란국죽(매화·난·국화·대나무)은 춘하추동 각 계절을 대표하는 식물로서 모진 계절의 변화에도 의연히 제 본분을 지키는 모습이 고결한 선비와 같다 해서 사군자라 일컫는다. 선인의 가르침을 본받고 사군자가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각 지자체가 가진 자원에 접목하기 위해 4개 시군은 축제 기간 동안 테마 부스 내에 사군자 관련 작품 등을 전시한다. 2년의 협약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광양매화축제에 이어 오는 4월 신안새우란축제, 5월 담양대나무축제, 10월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으로 이어지는 사군자 테마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평=김연수 기자

무안군, 36억 투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박차

내달부터 432개소 태양광 등 공급...가구당 年 60만원 전기료 절감

무안군은 12일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를 보급하는 공모 사업이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서 4년 연속 선정돼 확보된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을 투입, 9개 읍·면 43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설비(3kW)가 주택에 설치 완료되면 앞으로 해당 가구에 연 60만원(월 5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너지 자립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년간 9개 읍·면에 1천 213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완료해 운영 중이다./무안=김상호 기자



완도군은 2024년도 조림 사업을 본격 착수, 97ha에 지역 난대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 16만9천본을 식재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탄소중립 실현’ 조림사업 본격화

14억 투입 97ha에 16만9천본 식재...황칠 특화림 등 조성

완도군은 12일 “관내 산림을 공익·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조성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2024년도 조림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완도군의 조림 사업은 황칠 특

화림 조성(20ha), 철쭉 특화림 조성(10ha), 섬 지역 산림 가꾸기(15ha), 경제수 조림(37ha), 산림 재해 방지 조림(10ha) 등으로 구분된다. 군은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97ha에 지역 난대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동백

나무 등 16만9천본을 식재한다. 특히 완도군은 국내 황칠 천연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황칠 주산지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2억원을 투입해 165ha에 황칠 특화림을 조성했다. 올해는 노화, 군위, 신지, 고금 등의 20ha 산림에 황칠 특화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철쭉 특화림 조성 사업은 약산면 진달래공원을 배경으로 산철쭉 5만본을 추가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

고, 산림 관광자원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연평균 기온 상승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무 식재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조림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탄소 흡수력이 높은 난대 수림을 확대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황금빛 제2 인생 시작” 강진품에 입주자 선정

총 5가구 빈집 리모델링 제공...月 1만원·최대 6년 거주

강진군이 강진품에(愛) 입주 대상자 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리모델링 빈집인 강진품에(愛)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빈집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 대상 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강진군 빈집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고 강진품에(愛)가 위치한 마을 이장, 부녀회장이 참석했다. (사진)

2차 모집에서는 67가구 모집하는 공고에 총 74가구가 신청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서류 전형 등을 통해 18가구를 선발했다.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 하는 등 객관적 평가인 서류 평가를 통해 3배수인 18가구를 선정했고, 서류 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등의 내용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 현장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강진을 선택한 이유, 강진에서의 정착 의지 등을 절실히 호소하는 지원자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강진에서의 제2의 인생을 위해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왕복 14시간의 거리를 수차례 방문해 강진 구석구석을 돌아본 지원자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의 귀농을 위해 체류형 귀농 교육을 이수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군은 약 3년간의 면집 끝에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위 5가구를 최종 입주자로 선정했다.

강진품에(愛) 최종 가구로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군에서 임대하는 농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와 완료하고, 계약 만기 전까지는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3차 모집 가구는 이달 예정으로 10가구가 될 예정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 고향사랑기금 ‘보호종료아동’ 지원

기금 사업 1호 시행...1인당 年 100만원·맞춤형 교육 등 제공

목포시는 12일 “보호종료아동 자립 준비 교육비 지원사업을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금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던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 종료 직후 주거를 포함한 일상생활 기술 부족, 사회생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기금사업을 통해 올해 18세가 되는 2006년생 보호종료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를 위한 연간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운전면허, 어학, 미술, 컴퓨터 활용 등 개인의 맞춤형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딛게 내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향후 든든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짐다리까지 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대상 아동별 진로와 관련한 필요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정산은 물론, 상시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해 교육비가 자립 준비에만 성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나온 목포에 응원을 보내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기금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 자립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목포시가 실시한 공직자·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목포=정혜선 기자